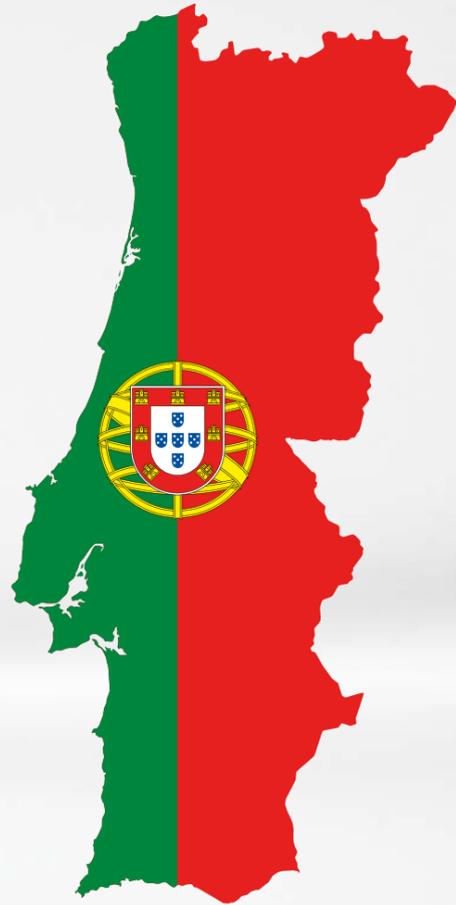




KWC 2019 Portuguese Wines

와인 산지로서 포르투갈은 아직 베일이 다 벗겨지지 않았다. 수세기동안 세계 최고급 와인으로 명성을 이어온 포트 와인의 그늘에 다른 와인들이 가려진 탓도 있다. 유럽 끝자락에 위치해 해외 시장과의 교류가 적었던 탓도 있다. 주목해야 할 와인으로 포르투갈의 와인들이 세계 미디어에 오르내린지는 이미 꽤 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그 기류를 체험하게 된 것은 최근 2~3년간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에서 포르투갈 와인들이 활약하면서야 아닐까. 특히 KWC 2019는 '포르투갈의 해'라는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KWC 2019 수상 와인들과 함께 포르투갈의 진가를 만나보자.

글 강은영, 조은지 사진 Wikipedia, Pixabay



❶ 트로피 레드 & 화이트 석권

KWC 2019에서는 트로피 레드와 트로피 화이트를 모두 포르투갈 와인이 차지해 '포르투갈의 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영광의 주인공은 몬뜨 다 라바스케이라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와인은 아니었지만 KWC 트로피 석권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한다.

❷ 주목받는 산지

2~3년 전부터 포르투갈은 KWC에 참여한 국가 중 가장 흥미로운 와인 산지로 꼽혔다. 포르투갈 와인들은 미수입인 경우가 많았는데, KWC 수상 이후 수입이 된 사례도 있다. KWC 2019에 포르투갈은 총 35종의 와인을 출품했고, 놀라울 정도로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평을 받았다.

❸ 다양한 토착품종

토착품종의 천국 포르투갈답게 수상한 와인들을 보면 대체로 포르투갈 토착품종으로 빚어진 와인들이 많다. 자연히 흥미로운 블렌딩도 많이 보인다. 베르데호와 사르도네 블렌딩처럼 포르투갈 토착품종에 국제품종을 블렌딩한 와인도 볼 수 있다.

포르투갈 와인 산지

포르투갈의 와인 산지는 14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포르투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토착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각 산지별로 다양한 토착품종들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Vinho Verde 비뉴 베르데

포르투갈의 최북단 서쪽 코너에 위치한 이 나라의 가장 넓은 DOC 지역이다. 서쪽은 대서양에 면해 있다. 북으로는 스페인과의 경계를 형성하는 미뉴 강 일대에서 아래로는 오브리또의 해안가까지 뻗어있다. 이 지역은 미뉴(Minho)라고도 하는데, DOC 보다 아래등급인 비뉴 레지오날(Vinho Regional)을 커버하는 명칭이다. 서늘하고 강수량이 많은 이 지역 와인은 높은 산도가 특징이다. 재배하는 포도종에는 로레이루(Loureiro), 트라야두라(Trajadura), 아린또(Arinto), 아베소(Avesso), 알바리노(Alvarinho) 등이 있다. 화이트는 라이트하며, 파삭한 질감이 특징. 또 향이 좋고 미세하게 버블이 느껴지기도 한다. 1999년 이후로는 DOC로 스파클링 와인 생산이 허용됐다. 한편 레드 와인은 색이 짙고 높은 산도와 낮은 알코올이 특징이며, 주로 늦 수확한 비냐(Vinhão)로 생산한다.



Trás-os-Montes 트라스우몽테스

비뉴 베르데에서 동쪽 내륙으로 들어가면 트라스우몽테스가 나온다. 산맥에 막혀 해안과는 단절되어 있다. 높고 거친 지역으로 토양이 척박하고, 화강암에 편암이 일부 섞여 있다. 이곳의 와인은 높은 고도와 극단적인 대륙성 기후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 레드드는 주로 바스타르도(Bastardo), 마루포(Marúfo), 띠따 로리즈(Tinta Roriz), 토우리가 프랑카(Touriga Franca), 토우리가 나시오날(Touriga Nacional) 품종으로 생산하며 주요 화이트 종으로는 코데가 도 라리노(Códega do Larinho), 페르나오 피레스(Fernão Pires), 고베이우(Gouveio), 말바지아 핀카(Malvasia Fina) 등이 있다.

Douro Valley 도우루 벨리

포르투갈의 대표적 와인 산지. 1756년 포트 와인 산지로 세계 최초로 원산지명칭제도를 도입한 지역이기도 하다. 트라스우몽테스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펼쳐지는 내륙 지역으로, 도우루 강이 관통한다. 포트 와인과 세계적으로 가장 힘겨운 와인 산지로도 유명하다. 가파른 언덕 위 척박한

편암 토양에서 포도가 자란다. 돌벽으로 쌓은 좁은 테라스 형 포도밭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랜 역사 동안 포트 와인으로 명성을 얻어왔지만 오늘날에는 스틸 와인 생산에도 힘쓰고 있다. 많은 포도밭에는 소출이 적으면서 풍만하고 복합미가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는 올드바인들이 있다. 포트에 사용되는 주요 품종 다섯 개는 띠따 로리즈, 토우리가 프랑카, 토우리가 나시오날, 띠따 바로카(Tinta Barroca), 띠또 까웅(Tinto Cão)이다. 타지에서는 비냐이라 부르는 소우자웅(Sousão)이 최근 이 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오래된 포도밭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품종은 뜨린까데이라이다. 화이트로는 고베이우, 말바지아 핀카, 모스까텔(Moscatel), 라비гато(Rabigato), 비오지뉴(Viosinho)가 있다.

Távora-Varosa 타보라 바로자

북은 도우루, 남은 다웅 지역과 맞닿아 있는 작은 산지. 대륙성 기후를 띠는 지역으로 기온의 차이가 크다. 포도밭은 흔히 해발고도 500~800m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며 화강암이나 편암 토양에 조성되어 있다. 높은 고도에서 포도는 신선함과 과일 풍미를 유지하기 좋아 훌륭한 스파클링 와인의 재료가 된다. 실제 이 지역은 1989년 포르투갈 최초로 스파클링 와인 산지로 인정받았다. 오래된 포도밭의 절반 정도는 말바지아 핀카가 자라고 있다. 그리고 비칼, 세르시알(Sercial), 페라나오 피레스, 고베이우 등 화이트가 주를 이룬다. 레드드는 띠따 바로카, 띠따 로리즈, 토우리가 프랑카, 토우리가 나시오날이 있다. 국제품종인 사르도네와 피노 누아도 볼 수 있다.

Bairrada 바이라다

서쪽에는 대서양이 동쪽에는 다웅과 면해 있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띠며 강수량도 풍부하다. 가파른 언덕이 많지만, 포도밭은 대부분 평야지대에 있다. 바이라다는 스파클링 와인으로도 주요한 지역이다. 비교적 서늘한 기후 조건 아래 산도가 높은 베이스 와인이 나는데, 향기로운 페리나오 피레스나 아린또, 비칼, 세르시알, 때로는 사르도네가 베이스로 쓰인다. 바가(Baga) 품종을 빠르게 압착해 만든 블랑 드 누아 스타일도 있다. 바가는 이 지역 전통 레드 품종으로 잘 익으면 농밀한 과일 향과 복합미를 띠는 와인으로 탄생한다.

Dão 다웅

다웅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대륙성 기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해안의 서늘함이나 비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있다. 200m의 저지대에서 1000m의 고지대까지 전체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포도는 천천히 익고, 향과 산도가 좋으며 우아한 스타일의 레드와 화이트 와인들이 탄생한다. 다웅의 와인은 숙성력도 좋은 편이다. 레드는 또우리가 나시오날, 알프로셰이로가 훌륭하며 종종 띠따 로리즈와 블렌딩 되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인기 있는 화이트 와인은 엔크로자두(Encruzado) 품종으로 빛은 것으로, 라이트하고 신선한 스타일에서 배럴 숙성된 풍만한 와인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진다.



Beira Interior 베이라 내륙

베이라 내륙은 다웅과 스페인 국경 사이에 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있는 곳이다. 완벽한 대륙성 기후를 띠는 곳으로 무덥고 건조한 여름과 춥고 긴 겨울이 찾아온다. 여름과 가을의 열기로 포도의 탄닌이 제대로 익기 전에 잠재 알코올 레벨이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에 비해 남쪽에 위치한 세부 지역인 코바 다 베이라(Cova da Beira)에서는 한결 포도의 숙성이 잘 진행되는 편이다. 이곳에서는 토착 화이트 품종인 폰테 칼(Fonte Cal)로 풍부하고 꿀 향이 나는 와인이 나온다. 주요 레드 품종에는 바스타르도, 마루포, 루페테(Rufete), 띠따 로리즈, 또우리가 나시오날이 있다.

Lisboa 리스보아

리스보아의 와인은 최근까지 에스트레마두라(Estremadura)의 와인으로 불렸다(에스트레마두라는 과거에서 사용했던 주의 이름으로 수도 리스보아를 포함한 지방이었다). 대서양을 따라 길게 뻗어 있는 이 지역은 강풍이 심하게 분다. 하지만 조금만 내륙 안쪽으로 들어서면 언덕과 산맥이 바람막이가 되어준다. 최고의 와인 에스테이트는 알렝케르(Alenquer) DOC 안이나 그 주변에 펼쳐져 있다. 이 지역은 좀 더 따뜻하고 바람이 약하며 덜 건조하다. 작지만 질 좋은 화이트 와인을 내는 지역으로는 부셀라스(Bucelas) DOC가 있다. 동부 중앙에 위치한 오비도스(Óbidos) DOC에서는 포르투갈 최고의 스파클링 와인이 난다. 이 지역 전체에서 주요한 화이트 품종은 아린또, 페리나오 피레스, 말바지아 등이며 레드에는 알리칸떼 부셰(Alicante Bouschet), 아라고네스, 띠따 프랑카, 또우리가 나시오날 등이 있다.

Tejo 테주

2009년 이전에는 리바테주(Ribatejo)로 불렸다. 테주라는 동명의 강의 영향으로 세부지역별로 기온과 토양의 차이가 나타나며 그에 따라 와인 산지도 세 개의 존(사르네카, 바이로, 캄포)으로 나뉜다. 그간 테주에서는 데일리 와인으로 쉽게 마실 수 있는 레드와 로제, 과일 향 좋은 화이트가 주로 생산되었다. 최근에는 고도가 높고 더 건조한 지역에 새로운 포도밭들이 조성되었고, 생산자들은 질적인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Setúbal Peninsula 세투발 반도

리스보아 정남쪽, 테주 강어귀에 자리하고 있다. 이 반도에는 2개의 DOC가 있다. 먼저 세투발 DOC는 모스까텔 포도로 만든 포티파이드 와인이다. 양조법은 포트와 흡사하다. 세투발 DOC는 최소 67%의 모스까텔 데 세투발(Muscat of Alexandria 품종)이나 모스까텔 록소(Moscatel Roxo 레드 모스까또)를 포함해야 하며 모스까텔을 85% 이상 사용하면 '모스까텔 데 세투발' 또는 '모스까텔 록소로' 표기된다. 질 좋은 모스까텔은 주로 남쪽 해안의 언덕지대인 아라비다(Arrábida)의 석회성 토양에서 나온다. 한편 팔메라(Palmela) DOC는 대체로 레드와



인이다. 가스펠라웅(Castelão) 품종이 메인으로 사용된다. 이 품종은 익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덥고 모래 토양으로 덮여 있는 팔메라 지역에서 잘 자란다. 그 외 아라고네스, 까베르네 소비뇽, 시라, 트린까테이라 등이 블렌딩 파트너로 쓰인다.

Alentejo 알렌테주

포르투갈 남부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만큼 방대한 지역이다. 햇빛이 풍부해서 과일 향이 풍부하며 마시기 쉬운 레드 와인이 많이 난다. 알렌테주 DOC에는 8개의 세부지역이 있다. 그중 사용 मामले 동북쪽에 포르타레그레(Portalegre) 지방은 높은 강수량과 신선한 기후로 한결 복잡하고 우아한 와인이 난다. 그 외 보르바(Borba), 에보라(Évora), 레돈도(Redondo) 그리고 레겐고스(Reguengos) 등은 좀 더 전형적인 알렌테주 와인들로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레드 와인들이 주를 이룬다. 이 와인들도 레이블에는 대체로 'Alentejo DOC'로 표기되는데 간혹 세부지역을 표기할 때도 있다. 알렌테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레드 품종은 아라고네스(뎀브라니요와 동일다. 그 외 트린까테이라, 가스펠라웅, 알프로셰이로, 알리칸떼 부셰가 있으며, 화이트로는 아린또, 안티우 바즈(Antão Vaz) 등이 재배된다.

Algarve 알가르베

알렌테주 아래 포르투갈 본토 최남단 지역이다. 하지만 알렌테주와는 달리 너무 춥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으며, 연 3000 시간 이상 햇살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화이트와 로제는 신선하고 마시기 좋은 스타일이며, 레드는 향이 좋고 우아한 스타일이다. 알가르베에는 라고스(Lagos), 포르티마웅(Portimão), 라고아(Lagoa), 타비라(Tavira) 등 4개의 DOC가 있지만, 최고의 와인은 오히려 느슨한 규정의 혜택을 입은 알가르베 VR로 출시되는 경향이 있다. 주요 화이트 품종으로는 아린또, 시리아(Siria), 말바지아 피나, 주요 레드 품종에는 네그라 몰(Negra Mole), 트린까테이라, 가스펠라웅이 있다.

Azores 아조레스

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리스보아와 같은 위도에 있지만 대서양의 영향으로 푸른 녹지대를 형성한다. 연간 기온은 온난하고 습도가 높은 편이다. 날씨의 변화는 잦다. 아조레스에서 대부분의 포도밭은 구획마다 검은 돌벽으로 울타리를 쳐놓았는데, 소금이 많은 대서양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와인이 나는 섬은 세 곳이다. 그중 그라시오사(Graciosa) 섬은 라이트한 화이트 와인으로 DOC를 획득했다. 이 외에 2개의 DOC가 더 있는데 포티파이드 와인의 몫이다. 이 지역 대부분의 와인은 화이트로 신선하고 상큼한 스타일로 만들어진다. 주요 품종에는 베르데호(Verdelho), 아린또, 테란테즈(Terrantez)가 있다.

Madeira 마데이라

포르투갈령이지만 본토에서는 1,000km나 떨어져 있는 대서양 한 가운데의 섬이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더 가깝다. 섬 안에는 산이 매우 발달해 깊은 계곡과 가파른 언덕이 많다. 종종 좁은 계단식 포도밭을 볼 수 있다.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는 이 화산섬은 동명의 포티파이드 와인으로 수세기동안 명성을 얻어왔다. 그 옛날, 열대 지역으로 향하는 선박에 실려 있던 와인은 뜨거운 태양 아래 숙성하면서 독특한 맛을 얻게 되는데 이 우연한 발견이 마데이라를 탄생시켰다. 오늘날은 와인에 열을 가하는 에스투파쟁(Estufagem)이라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마데이라 DOC에 주로 쓰이는 품종은 띠따 네그라(Tinta Negra), 세르시알, 보알(Boal), 말바지아(Malvasia), 테란테즈, 베르데호가 있다.

● Adegas Cooperativas de Redondo

아데가 코오페라티바 데 레돈도

아데가 코오페라티바 데 레돈도는 1956년 알렌테주 지역 와인 생산자 14명이 설립한 와인 협동조합이다. 알렌테주의 레돈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의 캐릭터를 고스란히 담은 포르타 다 라베사(Porta da Ravessa), 마레 비바(Mare Viva) 등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인다. 현재 연간 1,100만에서 1,400만 리터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와인전문지 <Revista de Vinhos>에서 최고의 와인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바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Adegas Cooperativas de Redondo Mare Viva

Silver Adegas Cooperativas de Redondo Mare Viva Selection Red

Bronze Adegas Cooperativas de Redondo Porta da Ravessa Reserva Red

● Lua Cheia em Vinhas Velhas

루아 세이아 엠 비냐스 벨라스

도우루의 특별한 기후와 토양에 매료된 3명의 와인메이커 주앙 실바 에 소우사(Joao Silva e Sousa)와 프란시스코 바우티스타(Francisco Bautista), 마누엘 디아스(Manuel Dias)는 뜻을 모아 2009년 루아 세이아 엠 비냐스 벨라스를 설립했다. 2011년에는 도우루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포도밭을 인수했고 현재 도우루의 개성을 담은 4개의 브랜드(Lua Cheia, Andreza, Colleja, Secretum)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확장하여 비뉴 베르데에서도 3개의 브랜드(Salsus, Maria Bonita, Maria Papoila)를 선보이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Lua Cheia em Vinhas Velhas Maria Papoila Loureiro Alvarinho

Silver Lua Cheia em Vinhas Velhas Reserva Especial



● Casa Santos Lima

까자 산토스 리마

까자 산토스 리마는 19세기 호아킨 산토스 리마(Joaquim Santos Lima)가 설립한 와이너리이다. 1990년부터 설립자의 손자들은 포도밭을 재정비하고 와이너리 설비 확장에 투자했다. 또한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도우루, 비뉴 베르데, 알렌테주 지역까지 포도밭을 확장해 나갔다. 이후 포르투갈 전역에 자리한 까자 산토스 리마의 포도밭은 400ha에 달하며 40여 가지 이상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다양한 품평회에서 수상하며 가성비가 뛰어난 와인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asa Santos Lima Palha Canas Reserva

Bronze Casa Santos Lima Palha Canas White

● Companhia Agricola do Sanguinhal LDA

컴파니아 아그리콜라 두 산구이날

아벨 페레이라 다 폰세카(Abel Pereira da Fonseca)는 1926년 봄바랄(Bombarral) 지역에 컴파니아 아그리콜라 두 산구이날을 설립했다. 현재 4대째 가족 경영으로 운영하며 오랜 전통과 혁신을 고루 갖춘 와이너리로 거듭났다. 이들은 지역적 특색, 토양의 성격이 각기 다른 3개의 에스테이트(Quinta do Sanguinhal, Quinta das Cerejeiras, Quinta de S.Francisco)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오래된 지하 숙성실과 양조실을 관광시설로 개조하여 와이너리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Gold Quinta de S.Francisco Obidos

Silver Companhia Agricola do Sanguinhal Cerejeiras Lisboa Tinto

Bronze Companhia Agricola do Sanguinhal Sottal Lisboa Branco

● Casa Ermelinda Freitas Vinhos Lda

까자 에르멜린다 프레이타스 비노스

1920년에 설립된 까자 에르멜린다 프레이타스 비노스는 가족 경영으로 10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세투발의 팔레라 지역에 위치한 이 와이너리는 초기엔 60ha의 포도밭에서 까스텔라웅, 페르니오 빠레스 두 품종만을 재배했다. 이후 440ha로 포도밭을 확장했고 또우리가 나시오날, 트린까데이라, 시라 등의 레드 품종을 늘려 한층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지국 및 해외 유명 컴퍼티션에서 1,000여개가 넘는 메달을 획득하며 뛰어난 품질을 입증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asa Ermelinda Freitas Moscatel Roxo de Setubal Superior

Gold Casa Ermelinda Freitas Sauvignon Blanc Verdelho

Gold Casa Ermelinda Freitas Vinha do Rosario Syrah

Silver Casa Ermelinda Freitas Alicant Bouschet Reserva

Silver Casa Ermelinda Freitas Cabernet Sauvignon Reserva

Silver Casa Ermelinda Freitas Terras do Po Castas Chardonnay Viognier

Silver Casa Ermelinda Freitas Vinha do Fava Touriga Nacional

● Casa Relvas 까자 렐바스

까자 렐바스 그룹은 5대째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알렌테주에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총 생산량의 70%는 3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2003년에는 퀄리티 와인 생산을 위해 에르다데 상 미구엘(Herdade Sao Miguel)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이들은 최첨단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퀄리티 와인을 빚는데 주력한다. 그 결과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포르투갈 내 수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입사 롯데칠성음료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asa Relvas Herdade Sao Miguel Colheita Seleccionada Red

Silver Casa Relvas Madxa

Silver Casa Relvas Sao Miguel do Sul Red

Bronze Casa Relvas Herdade Sao Miguel Escolha Dos Enologos

Bronze Casa Relvas Sao Miguel do Sul White

● Monte da Ravasqueira 몬뜨 다 라바스케이이라

몬뜨 다 라바스케이이라라는 알렌테주 지역의 북부, 아라이올로스(Arraiolos) 마을에 자리해 있다. 이들은 1998년 설립 초기부터 정밀한 포도 재배에 집중했다. 또한 2012년에는 각 포도밭을 구획별로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항공사진을 찍었다. 그 결과 기상학 데이터와 토양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포도밭을 집중 관리했고, 최상의 포도로 빚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었다. 몬뜨 다 라바스케이이라는 KWC 2019에서 트로피 2관왕을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Mundus Vini, WC 등 해외 유수의 와인 컴퍼티션에서도 다수의 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수입사 루나

수상 와인리스트

Trophy White Ravasqueira Reserva da Familia White

Trophy Red/Best Portugal Red Ravasqueira Syrah Viognier

Gold Ravasqueira Reserva da Familia Red

Silver Ravasqueira Touriga Franca

● Vidigal Wines 비디갈 와인즈

비디갈 와이너리는 포르투갈의 중부 레이리아(Leiria)에 위치해 있다. 연간 300만병을 생산하고 그중 90%는 30여 개국에 수출한다. 특히 비디갈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포르타 6는 가성비 좋은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포르타 6 빈도와 브랑코는 영국 유명 셰프 제임스 마틴(James Martin)이 "이 가격대에서 마신 와인 중 최고로 꼽는 와인"이라며 극찬한 바 있다. 또한 레이블에는 독일 일러스트 작가 하우케 바그트(Hauke Vagt)가 그린 포르투갈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와인을 표현했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Porta 6 Tinto **Silver** Porta 6 Branco

